

플랜트수출 관련시장변화, 애로 및 주요과제 발굴

-박광순 연구위원(주력산업실)

1. 출장자 : 주력산업실 연구위원 박 광 순
2. 출장지역 : 두바이, 도하, 카이로
3. 출장기간 : 2009년 1월 27일~2009년 2월 3일 (6박8일)
4. 출장목적 :

- 플랜트수출 관련시장변화, 애로 및 주요과제 발굴

5. 출장일정, 주요 방문기관 (면담자) :

1. 27 (화) - 인천 --> 두바이 이동 (1.28 수 05: 35 현지도착)
1. 28 (수) - KOTRA 두바이 지사,
 - 중동아프리카 플랜트건설수주지원센터(KOPCO),
 - 삼성중공업 중동지역본부 방문

- 면담자 :
 우기훈 KOTRA 두바이 KBC 센터장
 오경환 중동아프리카 플랜트건설수주지원센터(KOPCO)
 부센터장
 이명휘 삼성중공업 두바이지사 Marketing Manager

1. 29 (목) - 두바이 --> 도하 이동
 - GS건설 Doha 지사,
 - 호남석유화학 Doha 지사,

- 면담자 :
 황상호 GS건설 Doha 지사장
 정승원 호남석유화학 Doha 지사장
 송승욱 현지 Agent

1. 30 (금) - 카타르 한국대사관 방문

- 면담자 :
 김종용 대사
 구헌상 1등 서기관

1. 31 (토) - 도하 --> 카이로 이동

2. 1 (일) - 대우인터내셔널 북아프리카지사,
 - KOTRA 카이로 지사
 - 건설, 플랜트관련 현지 Agent 면담

- 면담자 :
 김용환 대우인터내셔널 북아프리카지사장
 신현길 KOTRA 카이로 지사장
 권세영 KOTRA 카이로 부지사장
 Mr. Ismail 현지 Agent

2. 2 (월)/2.3 (화) - 카이로 --> 인천

6. 출장세부내용 (면담내용 주제별 및 방문국별로 구분 정리)

(1) 면담 세부내용 주제별 종합정리

□ 중동 등 걸프지역 플랜트시장 동향

- 2003년 이후 계속된 고유가로 걸프지역 정부는 막대한 석유 수입을 인프라 개발과 젊은 인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투자함으로써 플랜트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짐.
 - 발전소, 도로, 공항 등의 인프라와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 및 물 관련 시설의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며, 아부다비, 도하, 제다, 리야드 등의 주요국 대도시에서는 상업 및 주거용 부동산 개발을 위한 민간 투자가 급증
- 중동지역 경제 및 건설 전문지인 MEED 산하 조직으로 걸프지역의 주요 프로젝트를 조사하는 Meed Projects에 따르면 2005년 초 기준 3,600억불 정도이던 걸프지역의 계획 및 추진 프로젝트 규모가 2008년 초에는 400% 정도 증가한 1조 8천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2008년에도 1~7월간 프로젝트 성장률이 급증하여 10월 말 조사 결과 그 규모가 거의 2조 9천억불에 달함. 2008년 말에는 거의 3조 2천억불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정

□ 유가 하락 이후 플랜트시장 급변

- 유가 하락이 걸프지역 플랜트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최초의 징후는 2008년 11월 초에 나타남.
 - 특히 부동산 부문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며, 국가별로는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대형 신규 개발사업 추진을 보류함. 인력을 감축한 UAE의 두바이와 아부다비가 좋지 않음.

○ HSBC은행의 2008년 10월 말 보고서에 따르면 두바이의 부동산 가격은 8월대비 4% 하락하였으며, 아부다비도 같은 기간 5% 하락한 것으로 파악됨.

- 하락의 주 요인은 플랜트는 물론 계획되지도 않은 부동산을 구매할 정도로 과열된 투기적 수요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

- 투자자들이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면서 투자가 중단되면서 가격 하락

○ 각국 정부의 프로젝트 지출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음.

○ 대부분의 걸프지역 정부는 2008년도 예산 수립 시 기준 유가를 배럴당 45~55불로 산정

- 따라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배럴당 유가가 60불 이상만 유지되면 재정지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2008년 11월 중순에 배럴당 유가가 50불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사정이 바뀜.

- 프로젝트 활동이 둔화되기 시작함.

○ 다만, 대부분의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완공될 것으로 기대

- 유가 하락이 계속되면 상당수의 계획 프로젝트들은 보류될 수 밖에 없음.

- 물론 보류 대상 프로젝트에는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급히 추진됐던 에너지 프로젝트도 다소 포함됨.
- 금융시장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음.
 - 이로 인해 민간부문이 추진하는 부동산 및 제조시설 개발사업이 타격을 입고 있음.
- 발주자들의 입찰 재실시 및 계약금액 재조정 등의 압력도 커졌음.
 - 고물가 상황에서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이익은 이미 상당 수준 감소한 상태임.
 - 비용이 급증하면서 계약업체와 공급업체들은 2008년 상반기 내내 발주자를 대상으로 이익과 비용분담을 위한 협상에 주력해 왔음.
- 하지만 유가가 하락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건자재 가격이 하락하자 발주자들, 특히 국영 에너지 및 발전 회사들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한 재협상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시작
 - 이에 따라 공급업체와는 장기 확정금액 계약을 체결한 반면 발주자로부터는 보다 낮은 계약금액을 수용하도록 압박을 받아 온 계약업체들의 상황이 불리하게 되었음.
 - 심지어 일부 계약업체들은 계약 취소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미지급 상황에 직면
 - 2009년에도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건 계약업체와 계약금액을 낮추려는 발주자간 계약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함.

□ 글로벌 금융위기에서의 긍정적 평가 요인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이 걸프지역 플랜트시장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있음.
 - 걸프지역 각국 정부가 인구 급증으로 촉발된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중심의 플랜트 발주물량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
- GCC 인구의 약 65%가 25세 미만일 정도로 동 지역에는 젊은 인구가 많아서 그동안 실업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돼 왔음.
 - 이 때문에 각국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프라 개발에 적극 나서려고 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동안 각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어 온 고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최근 수년간 걸프지역 각국 정부는 대규모 석유 수출수입을 바탕으로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추진해 왔음.
 - 이 결과 전통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온 물가가 카타르 20%, UAE 약 15%, 사우디아라비아 10% 등으로 급등하여 정부와 업계에 큰 부담이 되어 왔음.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는 GCC의 평균 물가 상승률이 한자리 수 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걸프지역 프로젝트 시장 특징

○ 2008년도 계약 프로젝트의 부문별 현황을 보면 일반 플랜트부문이 1,070억불로 규모가 가장 컸음.

- 수요 증가로 발전 및 물 관련 부문이 강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석유화학부문의 계약금액은 제한적인 원료 공급, 건설비 급등, 발주처의 사업 추진 지연 등의 이유로 전년대비 9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석유 및 가스 부문의 경우도 전년대비 20% 계약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계약 프로젝트에 비해 계획 프로젝트 물량 풍부

○ 걸프지역 프로젝트 시장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계획 프로젝트에 비해 실제 계약 프로젝트의 규모가 작다는 점임.

○ 2008년 1~10월간 계약 공사의 규모는 1,840억불로 파악

- 특히 금융위기가 현실화되기 전인 2/4분기에 계약(720억불)이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10월 말 기준 전체 프로젝트, 즉 계획 및 추진 중 프로젝트(2조 9천억불)의 약 1/4정도(약 7,200억불)만이 착공된 것으로 드러남.

○ 많은 사람들은 유가가 급락하고 있고 또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프지역 주요국 정부의 재정상태가 견실하며, 장기간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많은 점을 이유로 지역 프로젝트 발주가 적어도 향후 3년간은 비교적 활발할 것으로 전망

□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환경 악화로 사업 지연 및 축소

- 글로벌 금융위기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일부 민간부문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전 및 상하수 부문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음.
- 부동산 시장 또한 대출이 중단되면서 타격을 입게 됨.
 - 이 결과 2008년 11월 초부터 대형 프로젝트의 발주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함.
- 특히 다수의 대규모 계획 프로젝트 추진이 보류되거나 기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등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큼.
-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용 정유 프로그램 및 오만의 두쿰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일부 대형 정유 프로젝트는 입찰이 연기되기도 하였음.

□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입찰 지연 및 재입찰 실시 증가

- 2008년 중순 이후 그동안 급등했던 상품 및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많은 발주자들이 프로젝트의 입찰을 지연하거나 재입찰을 실시
 - 사우디 아람코의 경우 이미 착공 중인 110억불 규모의 마니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계약업체 및 공급업체에게 가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함.
- 2009년에도 걸프지역 프로젝트 시장은 발주자가 주도권을 잡는 반면 계약업체 간 경쟁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함.

□ 정부 지원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추진

- 유가 하락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걸프지역의 프로젝트 시장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가스 업스트림 부문과 발전, 상수 및 철도 등의 주요 인프라 부문은 정부의 재정 지원 하에 신규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력공사(SEC)는 9,360MW의 발전시설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9건의 민자발전사업(IPP)을 발주하는 210억불 규모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 이에 반해 민간 주도 부문은 계속해서 침체될 것으로 예상
 - 특히 두바이가 동 부문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

□ 정부 또는 대형 민간 개발업자 발주 프로젝트는 수주경쟁 격화

- 민간 발주 프로젝트가 금융조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약업체들은 정부 또는 대형 민간 개발업자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수주에 주력하고 있음.
- 일부 계약업체들은 다른 지역 프로젝트의 진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 두바이 소재 아랍텍건설(Arabtec Construction)의 경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추진되는 27억 2천만불 규모의 러시아 최고층 빌딩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점차 수주활동 지역을 유럽 및 극동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이와 같은 전략은 역내 다른 기업들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외 기업간 수주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2) 향후 시장전망과 전략에 대한 방문국별 기타 면담 내용

□ U.A.E. (두바이)

- 두바이는 경기 부양 위한 공공지출 확대
 - 두바이 정부는 침체되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2009년에 공공지출을 약 20% 확대할 것으로 알려짐.
 - 2008년도의 정부 지출 예산은 300억 디람(약 82억불)으로 추정
 - 특히 교통, 인프라부문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

□ 카타르 (도하)

- 카타르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
 - 카타르 경제도 외국인 투자 감소, 유동성 환경 악화, 주식시장 침체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러나 LNG 수출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정 및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되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기대
 - 카타르 정부 역시 이를 토대로 대규모 재정을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평가
- 카타르의 최대 강점은 에너지, 특히 천연가스 자원을 대량 보유하

고 있다는 점을 언급

- 카타르는 2007년 말 기준 러시아, 이란 다음으로 많은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임.
- 향후 2년 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LNG 시설은 카타르가스 트레인 및 라스가스 트레인 등이며, 이를 통해 연간 처리시설 능력이 2,300만 톤 증가하여 5,400만 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카타르석유공사(QP)는 또한 석유 및 컨덴세이트 증산에도 매우 적극적임.
 - 현재 하루 86만 배럴 수준인 생산용량을 2010년까지 100만 배럴까지 확대할 계획
 - 물론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회원으로서 생산물량을 제한받고 있어서 석유 생산량 규모가 변경될 수는 있음.
 - 한편 QP는 유가 하락과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개발 계획의 추진에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관련 프로젝트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

□ 이집트 (카이로)

- 지역별 시장세분화를 통한 다양한 진출 필요성을 제기
 - 중동 아프리카는 국가별로 소득수준, 개발 정도가 크게 상이하여 권역별로 다양한 진출 방법이 필요하며, 그 점에서 이집트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 비교 예시

비교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진출 중점 분야	석유화학 설비 및 신성장산업 (의료, IT 관련 등)	기초 제조업 - 화학, 엔지니어링, 식품관련 등
프로젝트 참가방법	자금 비 지원 참가 가능	자금의 기여(경협 또는 펀드)를 통한 참가

○ 코트라- 관심수요자- 금융권 통합 진출 확대 필요성도 언급

- 현행 실태를 보면, 자금 지원 국가 또는 단체 소속 기업의 프로젝트 낙찰이 주로 많음.
- 금융권은 펀드 조성을 통해 관심 수요자 발굴과 플랜트부문 투자를 통한 수익 실현 등 수익구조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금융권의 자금 조성, 관심기업의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